

아시아EPS생산자기구(AMEPS) 서울 총회 및 특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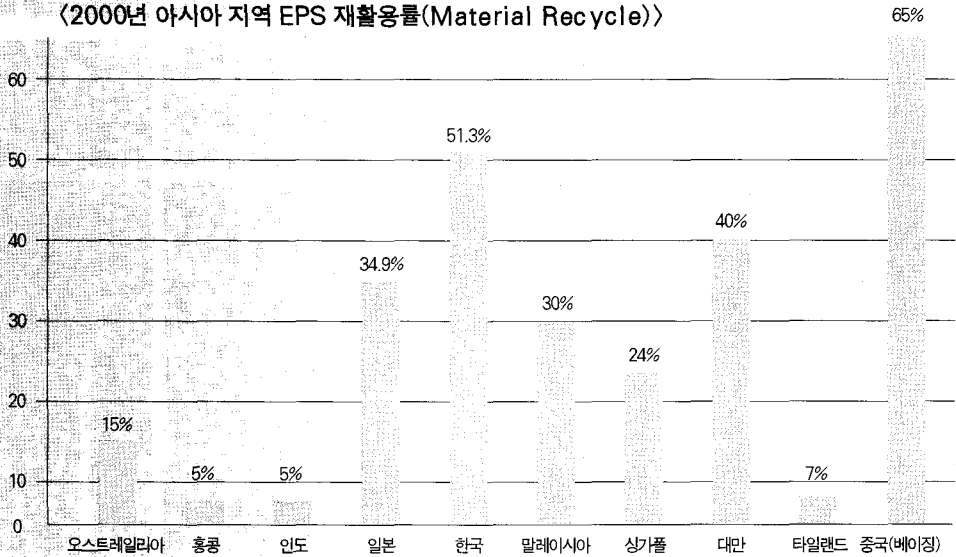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의 스티로폴 재활용 강화와 정보 교환을 위한 아시아 EPS 생산자기구(회장: 와키다 미쯔비시 케미칼 사장) 총회와 국제 특별 세미나가 지난 4월 25일부터 3일간 협회 주관으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번 아시아EPS생산자기구(AMEPS) 서울 총회와 특별 국제 세미나에는 한국을 비롯 10개 정회원국과 초청 회원국인 중국 등 11개 나라와 국내의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첫째날은 이사회와 총회가, 둘째 날은 특별세미나가 진행됐다.

첫째날 진행된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아시아 각 국가별 스티로폴 포장재에 대한 분리회수와 재활용 정책에 대한 정보와 재활용 기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중국을 정회원국 가입을 의결하였으며, 회원국간의 스티로폴 재활용 기술과 정보의 이동 뿐만 아니라 재활용 제품의 수입과 수출을 장려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둘째날은 국제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각 대륙의 스티로폴 재활용 현황이 소개됐으며, 미국EPS재활용협회와 유럽EPS생산자 기구 대표가 참가해 미국과 유럽 지역의 포장폐기물 정책을 발표했으며, 미국 PS(폴리스티렌) 포장위원회 마이클레비 전무는 <스티로폴 식품포장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와 <환경 건축에 있어 스티로폴 단열제 사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2000년 아시아 지역 EPS 재활용률(Material Recycle)〉



뒤이어 건국대 박세원 교수와 경희대 유정철 교수가 각각 버섯 수출 시 스티로폼 포장용기 신선도 연구와 조류의 스티로폼 인공새집 이용 연구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또한 행사 마지막날인 27일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회원국 대표들과 함께 스티로폼 재생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번 총회를 마무리했다.

아시아 EPS생산자기구(AMEPS)의 조직

조직의 출범과 현황 ● AMEPS(ASIAN MANUFACTURES OF EPS)는 1995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각국의 스티로폼 재활용단체간의 유대강화, 정보교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의 4개국 이 모여 창립하였다.

창립 이후 아시아 지역의 EPS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기구 미결성 국가들의 기구 결성을 유도하고 회원 가입 권유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EPS업계의 재활용 실천과 EPS 수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AMEPS 회원국 ● 2001년 3월 현재 정회원국은 한국(KFRA), 일본(JEPSRA), 대만(TEPSRA), 필리핀(PCPP), 말레이시아(MERC), 홍콩(HKEPSA), 태국(TERG), 싱가포르(SERC), 인디아(EPSRAI), 호주(PACIA) 10개국에 이번 총회에서 새로 가입한 중국(CPPIA-EPS)을 포함 총 11개국으로 늘어났다.

AMEPS 운영 ● AMEPS는 매년 총회(년 1회, 4월 중), 이사회(2회, 총회 시 및 가을), EPS 재활용 회의(격년 개최)를 개최하고 있다.

AMEPS 조직 구성과 활동 ● AMEPS는 회장을 포함 11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SPT:Special Project Team)를 두어 EPS 재활용기구미결립 국가에 대한 기구결성 협조 및 AMEPS 신규회원가입 권유를 위한 대표 파견, EPS 또는 PSP 식품포장용기의 내분비계장애물질 문제제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미국 PSPC(PS Packing Council), ISIF(International Styrene Industry Forum) 등과의 협조 및 최신 자료의 입수 및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EPS 포장재 재활용률 10% 수준

미국의 EPS포장재의 재활용 실적은 1991년 5.9%, 1995년 12.7%, 1999년 9.6%로서 평균적으로 1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1999년 EPS 포장재의 재활용량은 산업계 에너지 회수를 포함해 9,162톤으로 나타났다.

EPS 포장재 재활용업체는 총 30개소이며, EPS 포장재 재활용시설은 1998년 현재 170개로 형물업체가 50%, 재활용 전문업체가 50%로 구성돼 있다. EPS 포장재의 분리수거를 위한 물류비용의 부담은 형물업체 또는 재활용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스티로폴 배출자가 우편료를 부담하면 일주일당 5~10회를 배송해 협회가 보관 후 최종적으로 회원사인 형물업체에게 인도하는 EPS 포장재 우편 분리회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PS 포장재의 대량 사용업체인 IBM, GE, Nintendo 등이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지침서에 따라 EPS 재활용 원료를 새로운 포장재원료로 4,989톤(54%)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 EPS생산자기구 (AMEPS) 서울 총회와 함께 진행된 국제 특별 세미나에서는 미국EPS재활용 협회와 유럽EPS생산자 기구 대표가 참석해 미국과 유럽의 스티로폴 재활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유럽 - 유럽 국가의 평균 재활용률은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 35.8%

※ () 속은 소각 등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수치

현재 유럽국가들 대부분은 Green Dot 시스템을 채택 스티로폴을 재활용하고 있다. Green Dot 시스템을 채택한 유럽 지역의 스티로폴 재활용률은 회원국가 평균 25.3%(35.8%)로 나타났다.

재활용 방법은 스티로폴 가공으로 7.5%, 개스 충전을 통한 스티로폴 비드 생산에 1.7%, 스티렌 가공에 5.3%, 에너지 회수에 10%, 그리고 모노화 등 유화원료로 0.8% 사용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 85.7%(89.3%), 독일 70%(76%), 네델란드 47.3%(50.4%)로서 EU의 재활용 목표율 25%(50.4%)를 달성했으며, 벨지움은 29.7%(29.9%)로 나타났다.

Green Dot 시스템

포장용기 사용업체가 포장용기에 재활용 표시인 녹색점(Green-Dot) 로고를 부착할 권한을 구입하는 것. 녹색점 표시 부착 수수료는 포장용기의 중량과 채적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수수료는 전국 단위 재활용 기구에 지불되고, 이 기구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